

스무살 생일 천사가 된 '하늘이' 7명에게 새 생명 주고 하늘로

희귀질환 앓다 숨진 김하늘군 장기기증

초등6년때 '모야모야병' 대학 때 알바해서 번 돈 부모님께 드리며 효도

'장기기증의 날' 인 9일 뇌사판정에 기증 결정 고귀한 생명나눔 감동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지난 12일 생을 마감한 김하늘군의 가족 사진. 왼쪽부터 아빠 김영섭씨, 엄마 양성숙씨, 누나 햇님씨, 하늘군. <유족 제공>

'하늘이가 하늘로 떠났다.' 스무 살 대학생 김하늘군이 자신의 20번째 생일날이던 지난 12일 환자 7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읽고 쓰러 진지 보름째, 광주기독병원에서 첫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방행정과 전공서적을 보며 꿈을 키워왔던 하늘이의 두 눈은 칠축 같은 어둠 속에서 기증자만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가 새 세상을 열어줬다. 심장, 췌장, 간장, 2개의 신장 등 나머지 장기도 모두 꺼져가던 생명에게 가 힘을 보탰다.

쓰러진 하늘이가 광주기독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처음 뇌사 판정을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장기기증의 날이던 지난 9일이었다.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의 9월 9일(장기기증의 날), 하늘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단란했던 네 식구에게 하늘의 뇌사 판정 소식은 청천벽력으로도 다가왔다. 아빠 김영섭(61)씨, 엄마 양성숙(60)씨, 누나 햇님(23)씨 등 남은 가족은 상심속에서도 하늘이에게 새 삶을 안겨주기로 마음 먹었다. 애타게 기증자를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이다. 가족 모두 종교가 없었기에 종교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비농사로 생계를 꾸리기는 형편이지만 힘(재산이) 닿는 데까지 병상의 아들을 뒷바라지하겠다는 마음을 바꿔 하늘이가 세상에 태어난 날 아들을 보내주기로 가족들의 뜻이 모아졌다. 그 뒤 가족들은 광주광산경찰에 장기기증 결심을 알리고 경찰의 도움 아래 신속히 진행했다.

하늘이가 입원해 있던 기독병원의 주치의는 뇌사판정위원회가 있는 조산대병원으로 연결해주었고, 지난 11일 낮 12시30분 하늘이는 2차례의 검진을 통해 법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조직 검사 등을 거쳐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심장 등 7개의 장기와 피부조직, 연골 등 이웃에게 쓰일 수 있는 육체의 대부분은 기증을 바라던 환자들에게 전해졌다.

하늘이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큰 병을 앓았다. 병명은 모야모야병. 뇌의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 질환으로 아직까지 원인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생 위험이 따라 다닌다고 걱정하는 질환이라고 한다.

열 두 살 하늘이는 당시 머릿속 혈관에 가느다란 인공 혈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몇 개월 앓아 누운 것도 잠시.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하늘이는 금방 씩씩한 모습을 되찾았다. 또래 다른 아이

처럼 농구, 축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대학(동신대)에 입학해서는 동아리 활동은 물론 집 주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2년여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매사에 열심이었다. 힘들게 번 돈은 농사일을 하는 엄마-아빠에게 농약 기계를 사드리거나 학비에 보탰다. 1년여 전부터는 여자친구를 사귀느라 모은 돈을 쓰곤 했는데, 엄마-아빠는 아꼈던 아들이 남들처럼 이성 교제를 하는 모습마저 대견스러웠다고 했다.

아빠 김씨는 "마음 같아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옆에 두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이 생명이 꺼져간다고 하니가 건강할 때 누군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가족으로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장기기증) 세상을 위해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는 안구 2명, 심장 5명, 신장 80명, 췌장 6명, 간장 20명 등 113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울어 펌 1건, 안구 6건, 췌장 3건, 심장 2건, 신장 67건, 간장 72건 등 151건의 장기 기증이 이뤄졌다. 장기이식 참여자는 뇌사자 54명, 생존자 97명 등 151명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도소서 폭행 당한 이흥호씨 가족 인권위 진정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 당해 중상을 입은 서남대 설립자 이흥호(76)씨의 가족이 교도소의 관리·감독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13일 이씨 가족에 따르면 지난 9일 교도소 내 이씨 폭행사건 진상과 광주교도소의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가족 측은 또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교도소 폭행을 담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광주지검에 폭행 기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가족 측은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22일이 지났지만 교도소 측이 폭행 경위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씨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려고

중병을 위장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이씨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접촉도 여의치 않아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밤 7시께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 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크게 다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 없는 금남로 좋아요" '토요일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광주 금남로 일대가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12일 자녀와 함께 금남로를 찾은 한 가족이 비눗방울 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복구 하루 50건 범죄 '최다'

지난해 1만8252건 발생 서·광산·남·동구 순

지난해 광주시 복구에서 하루 50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 북부경찰 관할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구는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경찰서별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복구에서 모두 1만8252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서부경찰 1만6445건, 광산경찰 1만5931건, 남부경찰 7256건, 동부경찰 6938건 순으로 조사되는 등 지난해 광주에서는 모두 6만4822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동부경찰이 6884건, 서부경찰

2599건, 북부경찰 4077건, 광산경찰 4010건, 남부경찰 3301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광주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자치구는 동구로 조사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13만3755건의 범죄가 발생한 부산과 대구(9만5753건), 인천(9만4210건)이 광주보다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울산(4만1167건)과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4만7565건)은 광주보다 범죄 발생 건수가 적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 부천원미경찰(2만1196건)과 서울 강남경찰(2만1092건), 서울 송파경찰(2만282건) 관할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경찰 1인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7건으로 조사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아 치안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한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12.3건으로 경찰 1인당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사대금 못받은 50대 자살

12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이모(57)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날 새벽 3시에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발견 당시 가족 앞으로 "미안하다. 나 없어도 잘 살아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나이트클럽 조맹 설치공사 대금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나이트클럽 공사 현장에 머물며 유치권을 행사해왔으나 최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숨진 이씨 외에도 해당 나이트클럽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20여명의 채권자들은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한폭탄 신고-알고보니 알람시계

○...광주의 한 도로변에 다이너마이트 모양의 시한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 수십여명이 출동했지만 비슷한 모양의 알람 시계로 밝혀지는 해프닝.

○...13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옹동 한 고물상 앞 풀숲에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 폭발물 감식반 등 군·경 50여명이 출동, 1시간 동안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다이너마이트 모양의 알람 시계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일명 '다이너마이트 알람 시계'가 인터넷에서 2만~5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며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긴 막대 7개가 검정 테이프로 묶여 있고, 디지털 시계와 전선이 감겨 있어 시민이 충분히 폭발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검 4대 비리 척결 특별수사팀 구성

광주지검이 고질적 4대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광주지검은 13일 공직 비리와 불공정 거래, 브로커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차장검사가 팀장을, 신봉수 특수부장과 손석천 강력부장이 부팀장을 맡고, 특수·형사·강력부 검사 9명, 수사관 30명이 참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권력형 비리와 직권 남용·직무유기 등 공직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흐리는 불공정 거래와 사비인 연 등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조세포탈과

보조급 비리, 공기업 비리 등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교육·법조 브로커 비리 등 전문직의 구조적 비리다.

검찰은 감사원, 국제정보 협력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4대 비리 특별 신고 전화(062-225-3333)를 운용하기로 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며 "광주지검은 전국 최초로 특별수사 TF팀을 구성, 부정부패 척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 통합 의학 강좌

- 교육 목표** 통합의학(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 의학)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통합치료(치유)능력 향상 개발
- 교육 대상** 양의사, 한의사, 심리상담 치유사 물리치료사, 보완대체의학 종사자
- 교육 과정** 3대 의학이론 이해와 치료(치유)실기 통합의학의 필요성과 상관관계 공부
- 수강 기간** 2015년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30~21:20) 15주
- 모집 기간** 2015. 8. 24(월) ~ 9. 19(토)
- 수강료** 300 만원
- 접수처** 문의 : (062)360-5760 010-8477-0620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수진**
- 강길진** 서울대학교 졸업, 산부인과 전문(의)박사, 前 충남대 교수, 한국정신과학회 회장
 - 안상원** 대전대학교 졸업 (한의학 박사), 前 대전대학교 한의학 교수, 現 청담인 한의원 원장
 - 정명희** 원광대학교 졸업, 보건학 박사, 예술치료 전공, 現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 원은주**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대구한의대학교 졸업, 약사, 한의학 박사, 매일 경제 TV 건강한의원 출연중, 現 미다스림 한의원 원장

2015 학습스트레스관리사 양성 강좌

- 교육 목표** 학습스트레스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해 원하는 시험을 적시에 합격하도록 돕는 공부스트레스 관리사 양성
- 교육 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대학생, 각 분야 교육자
- 교육 과정** 대표적 학습스트레스인 집중력저하, 자신감결여, 불안감의 과학적 관리법, 완벽 합격의 효율율 학습법 교육
- 수강 기간** 2015년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30~21:20) 15주
- 모집 기간** 2015. 8. 24(월) ~ 9. 19(토)
- 수강료** 20 만원
- 접수처** 문의 : (062)360-5760 010-8477-0620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수진**
- 김병준** 행정고시 18회, 법학박사, 前 지방경찰청장, 前 조선대 교수, 前 연세대 외래교수, '2014 학습스트레스관리법' 저자, 現 (주) 생활명상 아카데미 CEO
 - 신종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 前 5군단 법무참모, 現 차세대콘텐츠산학회, 現 중앙대학교 초빙교수
 - 이용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회사 설립, 투자상담 컨설턴트